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jun@nypi.re.kr

정은주 부연구위원, eunjujung@nypi.re.kr

요약¹⁾

- 세계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국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같은 민족들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동포사회는 세대 간 교체로 인해 점차 한민족의식이 약화되고 있어서 동포간의 연대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차세대 동포인 청소년들을 한민족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되는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재외동포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로 선정된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개발을 실시하였음. 이를 위해 해당 국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와 학부모,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등을 실시하였음.
-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청소년, 대도시 진출 조선족청소년, 한국 진출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으로 나누어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35개 과제를 제안하였음.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기업지원 및 장학금지원 과제를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21개 과제를 제안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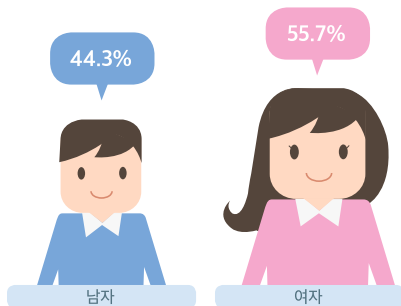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년 고유과제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방안 연구 II'를 발췌·요약한 것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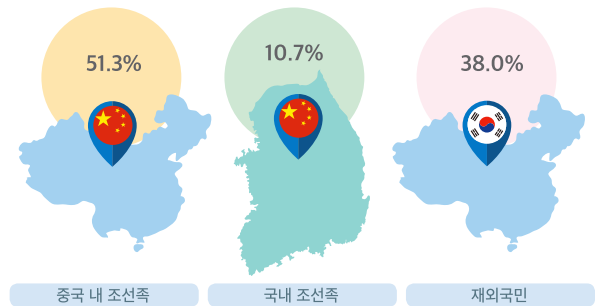
- ▶ 세계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 간의 연대를 꾀할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같은 민족들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이스라엘, 중국, 인도 등이 민족 네트워크의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나라이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강대국 간의 정치적, 경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는 국가로 향후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외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임.
- ▶ 하지만 재외동포들이 처해있는 국가적·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재외동포와의 연대 또는 도움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대한민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일수록 그 기대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따라서 글로벌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들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 중요함.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여러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함께 개별 국가별로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음.
- ▶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되는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목표로 연구를 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목표로 수행하고 있음.
- ▶ 특히, 2016년에는 재외동포 국가 중에서 인구규모와 파급효과, 정치적·경제적 비중 등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 국가로 선정된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2.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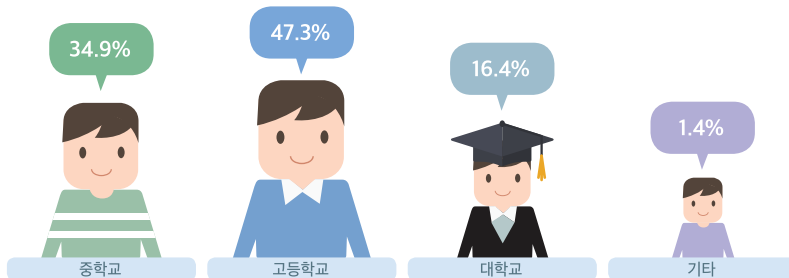
- ▶ 재중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 재중동포청소년은 동포유형별로 한민족 관련한 의식과 경험의 차이가 클 것이라는 생각에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 국내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의 3개 유형으로 나누어 조선족(한글)학교 재학경험,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등의 생활실태, 한민족정체성, 미래 인재 역량, 교류 경험 및 한민족 공동체 참여 욕구, 동포사회와 한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등을 살펴보았음.
 - 전체 응답자수는 731명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의 비율은 44.3%,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55.7%로 여자 청소년 응답자수가 남자 청소년에 비해 더 많았음. 교육별로는 중학생이 34.9%, 고등학생이 47.3%, 대학생이 16.4%, 기타 1.4%로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음. 동포유형은 재중동포청소년의 이동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외 조선족청소년과 재외국민청소년을 포함하였는데,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이 51.3%, 국내 조선족청소년이 10.7%, 재외국민청소년이 38.0%로 나타났다.



[그림 1]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그림 2]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동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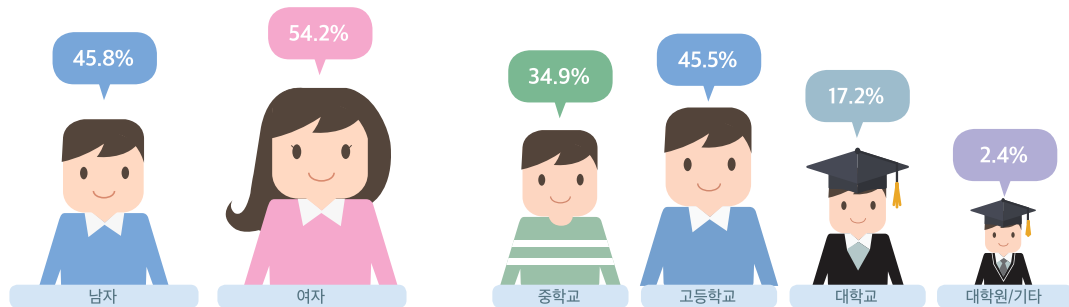


[그림 3] 재중동포청소년 응답자의 교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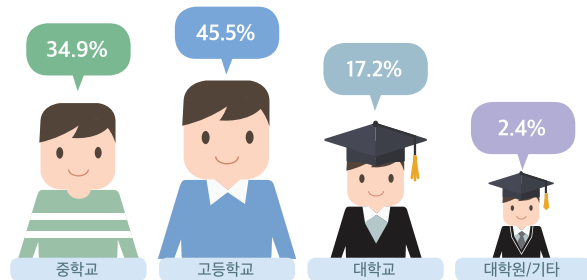
- 조선족(한글)학교의 재학 경험은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46.2%만이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중도 입국하는 조선족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한글이나 한국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짐작할 수 있었음. 또한 조선족청소년들의 조선족(한글)학교 입학은 부모의 권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민족교육에 대한 조선족청소년 부모들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보이고 있었음.
- 한국 관련 부모와의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에 대해서는 비교적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재외국민청소년에 비해서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이나 국내 조선족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한민족의 일원이고, 자신이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등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높지만,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등 한민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는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이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선족(한글)학교 재학 경험 부족이나 한국 입국 후의 부정적인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미래 인재 역량은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미래 인재 역량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창의적 사고나 문제해결력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재중동포청소년 유형별로는 재외국민청소년의 경우에는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의 점수가 다른 동포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국 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의 점수가 다른 동포 유형의 청소년보다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 하지만 국내 조선족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든 미래 인재 역량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국내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미래 인재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보이고 있었음.

▶ 재미동포청소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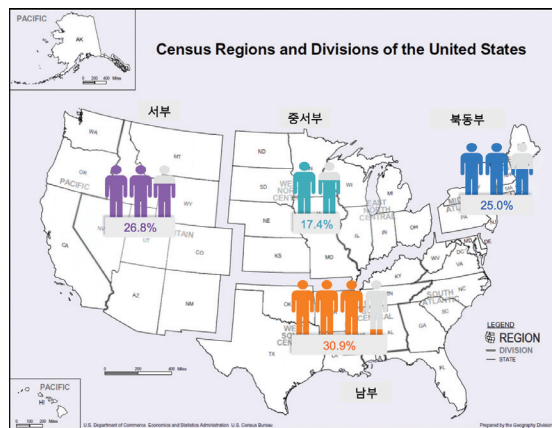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미동포청소년은 541명으로 남자 청소년은 45.8%(248명), 여자 청소년은 54.2%(293명)이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생 34.9%, 고등학생 45.5%, 대학생 17.2%, 기타 2.4%로 나타났다. 북동부(25.0%), 서부(26.8%), 남부(30.9%)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참여하였고, 미국 거주 기간은 평균 14.5년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6.5세로 나타났다. 설문 참여자의 71.3%가 미국 출생인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4% 정도의 청소년은 본인 출생 전 부모 또는 조부모 이전 세대가 미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성별 분포



[그림 5] 교육 분포



[그림 6] 거주 지역 분포

- 주말 한국학교 재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5%, 평균 재학기간이 약 5년이었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말 한국학교에 재학한 경험이 많고 다닌 기간이 더 길었으며, 주말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86.6%) 경우 부모님의 권유로 나타남.
- 한국어사용 능력과 관련한 설문에서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말하거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보다 높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는 항목의 평균이 가장 높은 반면, 부모님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는 항목은 가장 낮게 나타남. 재미동포 부모의 경우는 미국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내에서 보통 미국인들의 직업

생활 형태를 자신의 자녀들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민족 정체성과 관련한 조사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은 한민족에 대한 의식을 하고는 있으나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한 실천 부분에서는 평균이 낮게 나타났음. 미래인재역량과 관련해서는 재미동포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요인이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창의적사고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과 관련한 조사에서 동포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응답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나,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의 평균은 가장 낮았으며, 미국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도 평균이 낮게 나타남.
- 한국 관련 교류 욕구에서 재미동포청소년은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는 낮게 나타남. 향후 동포사회를 위한 기여에 대해서는 '미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혹은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와 같은 직접 역할 기여보다는 자신이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성공함으로써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접 역할 기여에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재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와의 가정생활, 한국과의 교류욕구, 의사소통 능력, 세계시민의식이었으며,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국어능력, 부모와의 가정생활, 동포청소년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욕구, 의사소통능력으로 나타났음. 한국어를 잘하고 동포청소년과 교류 경험이 많았던 재미동포청소년이 단순히 자신이 한민족이라고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실천적으로 역사를 알고 동포의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실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음. 동포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결과에서는 동포 청소년과의 교류경험, 한국과의 교류 욕구, 한민족정체성-실천, 창의적사고,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동포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한국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수록, 그리고 미래 인재 역량 중 창의적사고, 개인 및 사회적 책임,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재미동포청소년일수록 동포사회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정책제언

▶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향

-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미래 인재의 개발 관점에서 한민족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세계에 한민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는 다차원적 목표를 지향하고, 거주지역과 동포 청소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수행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의 협력과 참여, 그리고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의 정비와 시설의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 다각화된 내용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의 방향

▶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 재중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청소년, 대도시 진출 조선족청소년, 한국 진출 조선족청소년, 재외국민청소년으로 나누어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제안하였음.

[표 1] 미래 인재 유형에 따른 재중동포청소년 정책과제

구분	한민족발전의 촉진자(혁신자)	한민족발전의 후원자(조력자)	세계시민(한민족문화의 계승자)
조선족 청소년	동북3성 청소년 • 우수인재 청소년 교육지원 • 각종 경연대회 확대 • 한국 기업 인턴십 및 취업프로그램 확대 • 시의성 있는 직업교육 확대	• 심리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부모교육 및 매뉴얼 개발 •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 조선족 교육기관과 한국 교육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 국내외 민족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지원
	대도시 진출 청소년 • 사립학교의 설립지원 • 조선족학교에 교육 인턴 및 교사 파견	• 한글등 한민족교육기회 확대 • 조선족사회 동포네트워크 및 청소년활동 조직과 정보제공	• 또래동포 청소년 간 교류기회 제공
	한국 진출 청소년 • 재외동포청소년 인재개발센터 설치·운영 • 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사업 실시 • 중간숙련 기술교육체계 도입 • 조선족청소년의 전문교육 지원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 • 기업과 지자체 연계 특성화 교육시설 설치 지원 • 조선족청소년 학교 입학 상담 및 안내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 공교육 진입 전단계의 교육시스템 구축 강화 • 은둔형청소년 상담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배치 • 모국 정체성 함양 캠프 실시	• 한국생활문화 이해 및 사회기여활동을 통한 한민족의식 개발 • 선택적 진로지원시스템 구축
재외국민청소년	•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현지 특성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선	• 초중학생 한국학교 학비지원 확대 • 다문화가정 상담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지원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지원 • 청소년리더십캠프 개발·운영

- 동북 3성 지역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조선족청소년 심리 및 진로 상담서비스 제공, 조선족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및 매뉴얼 개발, 우수 인재 조선족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제공, 한민족적 자질의 우수성을 격려하기 위한 각종 경연대회 등 확대, 조선족청소년 대상의 시의성 있는 직업교육 확대, 한국 기업의 인턴십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지원, 민족적 자질 개발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조선족 교육기관과 한국 교육기관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국내·외 민족문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 대도시 진출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글 등 한민족 교육 기회 확대, 사립학교의 설립 지원, 도시 조선족학교에 교육 인턴 및 교사 파견, 조선족사회 동포네트워크 및 청소년활동 조직과 정보 제공 지원, 또래동포청소년 간 교류기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 한국 진출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인권 관련 법·제도 마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치, 재외동포청소년 인재개발센터 설치·운영, 공교육 진입 전단계의 교육시스템 구축 강화, 기업과 지자체 연계 특성화 교육시설의 설치 지원, 조선족(중도입국)청소년 학교 입학 상담 및 안내 센터 지정, 은둔형 조선족청소년 상담 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선택적 진로지원시스템 구축, 동포청소년 기술인재 발굴 및 양성 사업 실시, 중소기업 필요 인력 지원을 위한 중간숙련 기술교육체계 도입, 조선족기업가협회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조선족청년 기업이 양성 지원, 통번역 전문가 교육 등 조선족청소년을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선족청소년 모국정체성 함양 캠프 실시, 한국생활문화 이해 및 사회기여활동을 통한

한민족의식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 재외국민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는 초·중학생 대상의 한국학교 학비 지원 확대, 한국학교에 상담전문교사 파견 등 다문화가정 상담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현지 특성에 적합한 커리큘럼의 개선,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활동 공간 조성 지원,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리더십 캠프 개발·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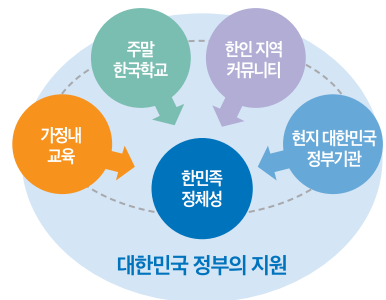
▶ 재미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기업지원 및 장학금지원 과제를 한민족 발전의 촉진자, 후원자, 한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의 역할에 따라 나누어 제안하였음.

[표 2] 미래 인재 유형에 따른 재미동포청소년의 정책 과제

구분	한민족발전의 촉진자(혁신자)	한민족발전의 후원자(조력자)	세계시민(한민족문화의 계승자)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 한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 • 한인 공동체와 주말 한국학교의 연계 • 모국 방문 및 연수 기회 확대	•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으로 지역 내 한인 공동체 활용 • 미주 지역 내 동포청소년을 위한 민족 또는 지도자 캠프 개발 및 지원	• 각종 대회와 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 주말 한국학교에 대한 새로운 모형 개발과 적용	•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과목 개발과 홍보 방안 구축 • 차세대 주말 한국학교 교육전문가 양성 • 주말 한국학교 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		• 재미동포청소년 교류 및 초청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 재미 입양 동포청소년 지원 • 재미동포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단계 설립 지원 •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 교재 번역 지원 및 배포
기업 지원 및 장학금 사업 확대	•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	

-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는 한인 지역 공동체의 역할 강화, 한인 공동체와 주말 한국학교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보급, 모국 방문 및 연수 기회 확대,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으로 지역 내 한인 공동체 활용, 각종 대회 지원 확대, 문화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미주 지역 내 동포청소년을 위한 민족 또는 지도자 캠프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그림 8]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연계 방향

- 주말 한국학교 지원과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주말 한국학교에 대한 새로운 모형 개발과 적용,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주말 한국학교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주말 한국학교를 위한 과목 개발과 홍보 방안 구축, 주말 한국학교 차세대 교육전문가 양성, 주말 한국학교 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확대, 주말 한국학교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 특히, 주말 한국학교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주말 한국학교가 민족정체성의 장이자 차세대 지도자 양성의 전초기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공간이자 문화와 언어 전파의 선봉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지역 한인 공동체와 연계하여 동포청소년을 교육하고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기관과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미주 지역의 현장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모형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림 9] 새로운 주말 한국학교 모델 개발을 위한 방향

- 재미동포 다인종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는 재미동포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단체 설립 지원, 국제결혼 가정의 부모를 위한 교육 교재 번역 지원 및 배포,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및 초청 사업의 참여 기회 확대, 재미 입양 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기업 지원 및 장학금사업 과제로는 직업 연계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참고문헌

김경준, 정은주(2016). 미래 인재 개발전략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I(연구보고16-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